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보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ewsletter

「2012년 샤이오 인권포럼」 특집

A Special "KINU Chaillot Human Rights Forum 2012"



-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2차 샤이오 인권포럼」을 2012년 6월 14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샤이오’는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을 의미한다.
- ▶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eld at “KINU Chaillot Human Rights Forum 2012” with the them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at Lotte Hotel Seoul on June 14, 2012. The term Chaillot comes from the Palace of Chaillot (Palais de Chaillot) in Paris, France whe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ember 10, 1948) was adopted.
- ▶ KINU is also running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consolidate competence of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are committed to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 개회사 (Opening Remarks)



김태우 _ 통일연구원 원장
Tae-Woo Kim _ President, KINU

Honorable Chunsik Kim, Vice-Minister of Unification, Representative Anne Mary Campbell of the UNHCR Korea, honorable Robert King,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dignitaries, ladies and gentlemen, those who spared their precious time to contribute as speakers and discussants, the audience who came to this place to join us despite their busy schedule and all those who dedicated their time to prepare for this forum.

Human rights is not a politically insensitive issue here in South Korea. For this reason, it took a rather long and bumpy journey for my institute and, to finally open this forum today. Some argue that mention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will endanger inter-Korean relations and will be detrimental to peaceful management of national division. Others argue that we have to tackle this issue rather squarely since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ll critically help the nation change into a more stable and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also argue that such a change will reshape North Korea into a country that does not need nuclear weapons and that we can then dream of a peaceful democratic unification.

Yes, both sides are right. We should not irritate the Pyongyang government by challenging human rights problems if we want to maintain peace on the peninsula. But we should tr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f we long for peaceful reunification. Yes, we have to chase two contradicting goals: peaceful management of a divided country on one hand, and the continual pursuit of peaceful unification and change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at is our goal, our dream, and our destiny. However, I am still unsure of how to avoid unnecessary tension and yet tackle the problem at the same time.

To my institute and I, however, this confusion was short-lived. We decided, firmly concluded that worrying about human rights and striving for change was an honorable endeavor transcending the small things we encounter everyday such as political controversies. Now we know that we are pursuing a universally recognized, absolute and most fundamental value that should be protected under any circumstance. With this firm belief, we tried really hard to acquire agreement, manpower, and budget to find ways mobilize countries and world citizen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truce line on this peninsula. We had to fight against a variety of stumbling blocks here and there. Today's forum is an outcome of such a turbulent process. This is why I feel my heart is too full for words.

With your permission, let me digress just a little bit. Looking back upon the pas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hen the nation earnestly requested national unity at the price of personal sacrifice, the American people listened to the entreaty and willingly sacrificed themselves. Whenever people complied with the nation's entreaty, their country became stronger and more prosperous.

On November 19, 1863, President Abraham Lincoln at the national cemetery in Gettysburg, Pennsylvania, ardently requested dedication and sacrifice of the people to save the nation. He said "Under God, this nation shall have new birth of freedom.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is address moved the mindset of the population and they constructed a freer, more prosperous America.

In June 6, 1944,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once again implored for the people's patience and sacrifice with his desperate prayer. He prayed through the nationwide radio broadcast on the eve of the longest day, "Almighty God, our sons, pride of our nation, this day have set upon a mighty endeavor, a struggle to preserve our Republic, our religion, and our civilization, and to set free a suffering humanity. Lead them straight and true. Give strength to their arms, and steadfastness to their faith." He also prayed, "Father, some will never return. Please embrace them and receive your heroic servants into your kingdom. With your blessing we shall prevail over the unholy forces." Of course there were many mothers and fathers listening intently to that broadcast whose sons were sent to the unfamiliar French beaches. They swallowed tears. They rededicated and redouble their efforts until victory was won and America gained economic stability and political power.

I think now is the time for all of us, not only those sitting here but all the global citizens who are already aware of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to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that part of the world. It is time for us to rededicate and redouble our efforts for the benefits they have the right to enjoy. Then, our planet will become more peaceful and everybody's quality of life will get better.

Today, North Korean leadership is failing to be honest with its people. They are saying, "Our kingdom of nuclear weapons, by nuclear weapons and for nuclear weapons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And then, we have to pray, "Almighty God, please give us strength and unity so that we can change and also change that country into one that is of human rights, by human rights and for human rights." If we are successful in this endeavor, we and they will become stronger, happier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 need for nuclear weapons.

Ladies and gentlemen,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all those who are joining and contributing to the 2nd Chaillot Human Rights Forum. I hope today's meeting will become a pivotal forum that awakens the world to the reality of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May God bless North Korea. Thank you very much.



●●●● 기초연설(Keynote Speech)



로버트 R. 킹 _ 대사, 북한인권특사
Robert R. King _ Ambassador,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저명하신 학자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연구·글·발표·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여기 계신 모든 참석자들과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천식 통일부 차관님,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님, 앤메리 캠벨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신혜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같이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회의를 주최해주신 김태우 원장님과 통일연구원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시고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주의를 촉구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타임스에 최근 기고한 칼럼에서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께서는 소련 역사의 한 시기, 특히 브레즈네프 시대의 소련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차이점에 대해 논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의 언급은 통찰력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소련은 1971년부터 1975년까지 893명의 정치범을 수감했고,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그 숫자가 347명으로 줄었습니다. 란코프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스탈린 시대의 소련 경우, 그 어느 시점에도 정치범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었으며, 정치범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100만 명 처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레즈네프 시대의 소련이 자유 민주주의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의견을 막고 인구의 대다수를 국가 통제하에 두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보유했던 억압적인 국가였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북한은 브레즈네프 시대의 소련보다는 스탈린 시대의 소련과 더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재의 북한에서도 지금은 사망한 위대한 지도자 혹은 그의 아들에 대한 농담을 친구, 이웃 혹은 가족이 당국에 밀고하면 당사자는 체포, 고문, 수감될 수도 있다는 일화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2011년 인권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가족 구성원 한 명이 고발당하면 어린이를 포함한 전체 가족을 수감시킨다는 보고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집단적 처벌은 3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련의 인권 침해 상황을 주목하고 소련정부가 이 사안을 직면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노력들을 저는 매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사하로프,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시대였으며, 인권에 초점을 둔 헬싱키 회의의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소련의 상황보다 북한의 상황이 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억압에 대한 외침은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차이점은 억압이 북한으로, 북한내부에서, 북한으로부터 흘러들어가고 나오는 정보를 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는 이 시대에 북한은 가장 극한 고립의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 국무부 보고용으로 탈북자들과의 폭 넓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접근에 관한 최근에 연구는 북한에는 일반을 위한 인터넷 접근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 통신은 가능하지만 엄격히 제한되

어 있습니다. 아마 면밀히 감시당하고 있겠지만 국가안의 통화는 가능합니다. 국외로 전화하는 것은 불법이고 매우 위험합니다.

- 국가가 통제하는 정보 채널 이외의 방송국 청취를 가능케 해주는 튜닝 라디오를 소유하거나 갖고 있는 것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것이 의미있는 이유는 북한 매체 환경에서 민감한 외부 뉴스를 직접적으로,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실시간 정보원으로서 라디오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의 정보 부족과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북한 정부의 바람은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식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대한 우리의 지식까지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소련의 경우, 소련 인권에 대한 지지를 동원시킨 솔제니친과 같은 개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처음으로 읽고 느꼈던 충격을 기억합니다. 1950년대 소련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이를 그리는 소설로 1962년 소련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솔제니친은 이 같은 메시지를 소련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의 폐해를 그린 사실적 다큐멘터리 “수용소 군도”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자하는 노력을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끈기있게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브뤼셀 유럽의회 의원들과 유럽대외관계국 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에 노출시킨다는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지하고 북한 기록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몇 달전 유엔 인권이사회가 승인한 결의안은 쿠바, 중국, 러시아 3개국만 반대하고 채택되었습니다. 2011년 유엔 총회 결의안은 찬성 123표, 반대 16표, 기권 51표로 역사상 가장 큰 표 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권 노력 조율을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도 일해왔습니다. 특히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규명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협력에 있어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

과 활동가들의 숫자가 그와 같은 협력 노력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안을 해결하고자하는 일본정부의 노력과 북한에 있는 한국인 전쟁포로 및 납치자 사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우리는 지지해왔습니다.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을 후원하기 위해 한국·일본·유럽연합과 협력했습니다.

또한, 북한정부에 직접적으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5월, 북한내부의 식량 사정을 평가하기 위해 저는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미국 북한인권특사에게 북한 입국이 허락된 것이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북한이 인권 기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포함한 북한 관리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열린 세 차례의 미-북 양자회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와 글린 데이비스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인권 기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백히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타파하고 정보가 독자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뉴스와 다른 정보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후 제가 처음 일했던 직장은 중유럽이 소련 영향하에 있던 시절 “자유유럽라디오(Radio Free Europe)”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국을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시키려 했던 나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국제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목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송의 힘을 믿으며 정보 차단을 끊는 것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다 열린 정보환경은 북한 주민들이 보다 의식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언론 환경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중이며 미국은 북한에 정보유입을 증가시키는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하는 우리의 의지에 근본 요소입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은신처를 찾고자하는 이들을 돕는데도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를 돕기 위해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동북지역의 탈북자 감금 관련 보고를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가

입국으로서 중국이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고위급에서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북한을 건설적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번영과 안보로 가는 것은 평양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국제적 노력을 해치는 위협나 도발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의무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으며 이들을

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우리가 깊이 우려하고 있음은 법치와 개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권의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 건국되었고, 이같은 권리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미국인에 대한 정의에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It is an honor for me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group of scholars and experts. I want to thank all of you participating here today who stand up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your research, writing, speaking, and advocacy. I would like to recognize the attendance of Vice Minister Kim Chun-sig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r. Kim Suk-woo, Presiden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presentative Anne Mary Campbell, UNHCR representative in Seoul; and Ms. Shin Heisoo, member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 would also like to extend a special thank you to President Kim Taewoo an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for hosting this important and timely event. Thank you all for your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U.S. government and for your efforts in calling attention to the deplorable human rights conditions inside the DPRK.

In a recent op-ed by Professor Andrei Lankov in *Asia Times*, he discussed the differences between an era from Soviet history, particularly the Brezhnev Era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 of Kim Jong-il. His comments on the prison camps were insightful and thought-provoking. From 1971 to 1975, Soviet authorities imprisoned 893 people for political crimes, and from 1976 to 1980, that number declined to 347. According to Lankov's data, during Stalin's Soviet Union, the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exceeded a million people at any one time and almost a million people were executed for political crimes.

This is not to suggest that the Soviet Union under Brezhnev was a liberal democracy. It was a repressive state with very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dissent and assuring that the vast majority of the population would remain under its control. Lankov argues that North Korea historically and today is more comparable to the Soviet Union of Stalin than Brezhnev.

Unfortunately, in North Korea today, we continue to hear anecdotal reports that even a joke about the now deceased Great Leader or his son — if reported to authorities by a “friend” or neighbor or family member who is an informer — can result in arrest, torture, and imprisonment. The 2011 Human Rights Report noted report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mprisoning entire families, including children, when one member of the family was accused of a crime. This collective punishment can reportedly extend up to three generations.

I remember very well the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in the 1970s and 1980s to focus attention on Sovie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press the Soviet government to face these issues. This was the era of Andrei Sakharov and Aleksandr Solzhenitsyn and of the Helsinki conference which focused on human rights.

Since conditions in North Korea appear worse today than they were in the Soviet Union of the 1960s, 70s, and 80s, why is there less of an outcry today about political prisons and repression in the DPRK?

It appears to me that the key difference is that repression is still succeeding in controlling information flowing into, within, and out of North Korea. In this era of virtually instantaneous global information,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extreme example of isolation.

- A recent study conducted for the Department of State on information access, based on extensive interviews with DPRK refugees, revealed that there is virtually no general Internet access in North Korea.
- Cell phone communication is possible, but severely restricted. Calls within the country are possible, though probably closely monitored. Calls to parties outside the country are illegal and extremely dangerous.
- It is still illegal to own or to have in your possession a tunable radio that permits listening to any stations other than state-controlled information channels. This is significant because radio occupies a unique space in the North Korean media environment as the only real-time direct source of sensitive outside news available nationwide.

This lack of information among the North Korean populace and the DPRK government's desire to strictly control information, limits what North Koreans know about the outside world, but it also limits what we know about what is happening in the North. In the Soviet Union, it was the efforts of individuals like Solzhenitsyn who mobilized support for human rights in the Soviet Union. I remember the personal impact the first time I read his book *One Day in the Life of Ivan Denisovich* — a fictional account of an inmate in the Soviet prison camp set in the 1950s, and first published in the Soviet Union in 1962. Solzhenitsyn reinforced this message with the non-fictional documentary *Gulag Archipelago* which documented the abuses of the Soviet political prison system.

The United States has worked persistently and steadfastly with other countries in our effort to focus on these issues. Last week, I had constructive discussions with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in Brussels where I noted our shared goal of exposing the North Korean people to the outside world. We have worked throug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General Assembly to suppor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to adopt resolutions critical of North Korea's record. The resolution approved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just a few months ago was approved by consensus, with only three countries — Cuba, China and Russia — expressing disagreement. The 2011 UNGA resolution passed by its largest margin in history: 123-16-51.

We have also worked with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o coordinate our human rights efforts. In particular we have work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with South Korean civil society to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in calling attention to abuses that we have identified. It is reflective of this cooperative effort that a number of scholars and advocates are here today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We have supported the Japanese government's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ese citizens abducted by the North, and the ROK government's efforts on the issue of prisoners of war and abductees in the North. We have collaborated with the ROK,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to co-sponsor the UN General Assembly and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We have also raised our concerns about human right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irectly. In May 2011, I traveled to Pyongyang to assess the food situation inside the country. This was the first time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as granted entry to North Korea and the first time we were able to engage in a direct dialogue with North Korean officials, including with First Vice Foreign Minister Kim Kye-gwan, about ways North Korea could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In the three U.S.-DPRK bilateral meetings held since July 2011, Ambassador Stephen Bosworth and Ambassador Glyn Davies made clear that North Korea must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in order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ed States broadcasts news and other information into the North, in an effort to break down the isolation of the people there and to make available independent sources of information. My first position after graduate school was with Radio Free Europe at a time when Central Europe was under Soviet domination, and I saw first-h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broadcasting in promoting human rights in countries whose leaders sought to shut them off from the outside world.

I still believe in the power of broadcasting and that breaking the information blockade is the key to positive change in North Korea. Ultimately, a more open information environment contributes to more conscious North Korean citizens. And in the North Korean context, small but significant changes in the media landscape are underway, and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increasing information to the DPRK. This is a fundamental component of our commitment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e are committed to aiding those who leave the DPRK to find refug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other areas, and we work with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with other countries to aid asylum seekers from the DPRK. We are deeply concerned by reports of deten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Northeast China. We have consistently and at high levels urged China to adhere to its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its 1967 Protocol, which include not expelling or forcibly returning North Koreans who should be protected under those treaties.

As President Obama recently said in Seoul,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North Korea, but its new leadership needs to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no rewards for provocations. The path towards prosperity and security is for Pyongyang to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DPRK will achieve nothing by threats or by provocations, which undermine international efforts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 knows its obligations and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it must comply with them fully.

Our deep concern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reflects our national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individual rights. Our country was founded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rights, and our support for these rights is a fundamental part of what defines the American people. The DPRK must demonstra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order for it to participate full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k you for what you are doing. We support your efforts.

제1회의: 북한의 자유권 실태와 개선 방안
Session 1. The Reality of Civil Liberties in North Korea and How to Improve It



●●●● 발표(Presentations)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주민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와 전망**

*Situations and Prospect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North Koreans under Kim Jong-un Regime*



이규창 _ 통일연구원
Kyu-Chang Lee _ KINU

이 글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하 “자유권”) 실태를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간단히 전망한다.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형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북한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선군사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2009년 개정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사회질서의 안정을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을 꾀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체제이완을 방지하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고 후계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시

민적·정치적 권리 침해가 심화되었다. 전단(빠라), 영상물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및 처벌이 광범위하게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탈북행위 단속 및 처벌이 강화하였다.

하지만, 2011년에 들어서면서 공개처형의 횟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① 북한당국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비밀처형 및 무기노동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 증가, ②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입, 북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개처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③ 뇌물수수료 공개처형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로 대체받는 사례, ④ 북한주민들의 공개처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공안계통의 인물이 전면으로 포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당국은 단기적으로 공안기관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시장활동과 당국의 통제 사이에 갈등 요소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자유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첫째, 통제강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인권실태가 악화될 것이고, 둘째, 통제가 강화되더라도 남한 비디오 시청 등 외부정보와 결합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주민의 인식의 변화가 확산될 것이다.

경제난과 식량난도 본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2009년 11월말 전격 실시된 화폐개혁 이후 일반주민들이 적응하면서 식량에 대한 최악의 접근 상황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보이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시 자유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deal with the situ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provide its prospects under the newly established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revised its Criminal Procedure Act to take legal measures supporting Military-first idea and Military-first politics as a guiding principle. After all, the revision of North Korea's Criminal Act in 2009 streamlined the provisions related to regime security and raised the levels of punishment. Imposing severe penalties on general crimes is intended to strengthen a security function of the Act. Its major goal seems to be intended to secure social order and eventually consolidate national discipline and social unity, while inhibiting the regime disruption.

North Korea intensified its domestic control and punishment to block dis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consolidate its succession system, which has aggravated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Individuals are publicly executed for the crime of circulating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through leaflets and/or video materials. Recently, devices such as computers, cell phones, MP3 players, and USBs have been introduced to North Korea, a culture of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North Korean residents has started to develop.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ignificantly strengthened border controls against defectors and punishment for them.

However, frequency of public executions, however, seems to have greatly decreased since 2011 because of following reasons: First,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 conscious of the international censure of public execution, increasingly used secret executions or life-time term of correctional prison labor rather than public execution; second, the public executions did little to furth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im to perpetuate the regime by instilling fear in the residents; third, public execution seems to be related to the general situation of corruption in North Korea; and fourth, indifference of North Korean residents to public execution can be one major reason of the decline.

Considering each and every detail of the elite group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ts overall representatives consist of public security authorities. It is predicted that public security institutions are tightening social controls in the short-term to consolidate power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t is predicted that gener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won't be improved much.

Nevertheless,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increasing struggles over markets, where residents seek trade to survive and the government seeks control. This struggle will influenc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 First, the human rights situation will deteriorate with the rise of some people's complaints over intensified control. Second, despite tightened control, the situation combined with outside information such as South Korean videos might contribute to the spread of perception changes in North Korean residents.

It appears that economic hardship and the food crisis cannot be solved. As ordinary residents have adapted to the poor economic situation after the currency reform of late November 2009, their access to food is known to be improving.

If North Korea converts its nuclear policy, reforms, and creates open-door policies, the general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 will improve, and their civil and political rights would be promoted as well.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GULAG, 굴락)의 해체 *Dismantling the Soviet GULAG*



캐서린 피츠패트릭 _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 재단
Catherine A. Fitzpatrick _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는 공산화와 소련화를 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된 계획이었다. 정치범 수용소는 지식인부터 부르주아까지, 이전 리투아니아나 우크라이나 반군과 같은 비러시아 민족 단체의 특권계층이나 의심스런 인물로 간주되었던 나치의 포로수용소에서 귀환한 전쟁포로들까지 수용되었다. 정치범 수용소의 목적은 교화였고 “왼쪽으로 한 발 더, 오른쪽으로 한 발 더 가면 도주로 간주된다”는 섬뜩한 문구가 말해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다.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는 최소의 비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국민경제정책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설립되었고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계획기

록에는 심지어 영양실조나 병든 정치범 수용소 죄수들의 생산 예상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자들은 오늘날까지 소련의 정치범수용소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살해든 사고사이드 간에 정치범 수용소가 단지 교화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진실은 양측의 주장 모두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자 혹은 후자로만 결정짓는 것은 소련 정치범수용소의 반인간적 진실의 핵심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소련의 정치범수용소는 법의 부재와 그 국가의 봉사에 있어서 법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절반이상이 재판받은 적이 없으며,

가끔 세 명의 패널로 구성된 “트로이카”에게 주로 한 밤 중에 약식재판을 받았다. 수감자의 가족들도 수감자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제도는 사람들을 국가의 범죄에 연루시켜 버림으로써 희생자가 가해자로 바뀌거나, 모든 직장과 학교의 부서에서 비밀경찰과 더불어 일반시민들이 제도화된 삶의 형태의 하나로 비밀경찰의 밀고자의 역할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있어 외부인의 역할은 증언이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존자와의 연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수용소의 건물은 폐쇄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가두기 위해 사용된 법도 바뀌기 때문에, 열심히 기록하고 출판하며 수대에 걸쳐 법치주의를 지속적으로 재확립시키기 위한 끊임

없는 재교육만이 이 치명적인 영향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짧은 이야기 속에 깃든 거대한 고통, 아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하로프의 최고의 조언이다. 사하로프는 러시아어로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보개방)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이다”라고 말했다.

정치범수용소 출신인 신동혁은 우리에게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북한에서 자신과 가족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 제 14호 정치범 수용소를 처음 탈출하여 그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계속 이야기 해왔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있는 고통스런 정치범수용소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The GULAG was a conscious plan for communization and Sovietization — it held everyone from intellectuals to bourgeois to “formers” from the previous privileged ranking classes to non-Russian national groups such as Lithuanian or Ukrainian rebels or Crimean Tatars or even returnees from NAZI POW camps, who were considered suspect. The purpose of the camps was re-education and many were shot — “a step to the left, a step to the right is considered flight” as the stern saying said. “Shoot without warning” signs are still found in the old camp areas.

The GULAG was consciously established as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to extract labour at the least amount of cost — which is why there were so many deaths. Planning records show the forecast of production from even the malnourished and diseased camp inmates, who were given more rations sometimes if they completed more work, which sometimes hastened their death. It didn't matter as the supply of more was inexhaustible.

Scholars continue to debate to this day whether the GULAG was intentionally set up to be productive and extract profit from labour, or was merely a re-education method; whether it deliberately worked people to death, or whether it was an accident. The truth is that it was all these things, and deciding this question one way or another distracts from the essential anti-human truth of the GULAG.

The GULAG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both lawlessness and law in the service of the state.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never had trials, sometimes facing summary proceedings, often in the middle of the night, by the infamous “troikas” or three-person panels. The family members of the inmate were also punished. When you have a system that criminalizes so many people — making them complicit in the crimes of the state, you have victims turning into victimizers, of ordinary people forced into the role of secret police informers as institutionalized forms of life, with the secret police a department in every workplace and school, then the problem of how to address the crimes becomes insurmountable.

The role of outsiders is crucial, for bearing witness and solidarity with survivors. While the buildings can be closed or even some laws changed used to jail people, only diligent maintaining and publication of the record and continual r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over many generations can mitigate the deadly effects. From this small story of the avalanche of suffering and pain and death in the GULAG, of which we only saw a very controlled glimpse, we could say that Sakharov's words were the best advice. "Publicity is the best weapon," he said, using the Russian word "glasnost," which he used 20 years before Gorbachev did.

The former prisoner Shin Dong-hyuk has shown us the wa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With incredible, unheard of sacrifices, he took the risk to himself and his family members to break free, to escape first from Camp 14, then North Korea, and then to tell his painful and excruciating story: We must ask our governments to raise the issue of the torturous labour camps in North Korea, not only privately but publicly.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Violations in Political Prison Camps



라지브 나라얀 _ 국제 엠네스티
Rajiv Narayan _ Amnesty International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는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조직적 특징을 나타낸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로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치범 수용소나 관리소로 일컬어지는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진다. 북한 당국은 "연좌제"를 운영, 심각한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가족들까지 관리소로 보내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 가족의 혈연관계와 개인의 희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문화에서 이러한 연좌제는 박해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시켜준다.

관리소는 1990년대 북한을 강타한 전례 없는 고된 식량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주민에 대해 북한당국이 표현, 의견, 결사, 신앙 및 이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관리소는 동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쇄된 국가 내 존재하는 폐쇄된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엄격

한 통제와 잔혹한 보안 수단들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수용자들의 탈주를 방지하고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한다.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러나 과거 수감자들의 증언 및 인공위성 사진촬영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수용소(관리소)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처음 건설된 19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관리소는 정치 지도부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행위 혐의를 지닌 사람들을 수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최초의 관리소는 1958년 말 평안남도 북창군 내 덕장광산 지역에 세워졌다. 초기에는 작은 마을 정도의 크기였으나,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거치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는 증가했고, 수용자의 수도 늘어났다.

국제엠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의 16호 관리소, 평안남도 북창리의

18호 관리소,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 수성의 25호 관리소가 존재한다. 관리소에 수감된 수는 약 135,000~200,000명이다.

국제엠네스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소는 범죄자만 수용하는 곳, 범죄자 및 가족들을 함께 수용하는 곳, 가족들만 따로 수용하는 곳으로 영역 또는 지역,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관리소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5호 관리소와 18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을 함께 보유한 반면, 나머지 관리소는 완전통제구역이며, 이곳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종신형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조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위반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관리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공민증을 압수당하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관리소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모호한 정치죄목으로 기소당한 사람들의 자백을 얻어내고자 재판 전 예심 과정에서 만연하게 고문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수감자들의 경우 수용소 경비원들에 의

한 잔인한 폭력을 경험 또는 목도한다. 관리소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공개처형 뿐만 아니라 사소한 위반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처형 등에 대해 증언했다. 관리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비상식적으로 높이 책정된 생산목표와 오랜 시간 일할 것을 강요당한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노동이며, 거의 쉬지도 못한 채 기아 수준의 식량을 배급받고 장시간의 노동을 강제 당한다.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속한 단체를 대상으로 식량이 제공되지 않는다. 관리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작업 중 사고로 생긴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거나 부실한 식사와 과로의 결합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다고 증언한다. 수감자들은 열악한 위생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적당한 의료시설의 부재와 결합되어 있다.

관리소(주로 관리소 15호 혁명화구역)에서 석방된 이들에 따르면 석방되는 날 공민증을 돌려받으며, 정치범 수용소 내의 생활실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석방 후 이들은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여러 가지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represent the systematic nature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country. Those who are allegedly critical of the leadership or reveal any sign of political opposition are sent to the political prison camps or political penal - labour colonies or kwanliso - often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perate a “guilt-by-association” system (yeon-jwa-je), by which family members of those charged with serious political crimes are also punished by being sent to the kwanliso. This punishment-by-lineage system that exploits the significance of familial bonds and personal sacrifice within Korean culture empower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persecute by birthright and to exert discipline and control through fear of such persecution.

The kwanliso represent the systematic nature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country within the context of the unprecedentedly ‘arduous’ food crisis which has devastated North Korea since the 1990s. The kwanliso are located remote areas and represent closed areas within a closed country. This, combined with strict controls and brutal security measures, have served to prevent escapes and block information from reaching the outside worl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officially denied the existence of those kwanlisos. Despit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official denials about the existence of these political prison camps, testimonies of former detainees and satellite photographs confirm their existence.

The kwanliso have been used — from their initial establishment in the 1950s to the present — to detain people suspected of criticizing or acting against the political leadership. The first kwanliso was established in the Dukjang Coal Mining region of Bukchang county, South Pyongan province at the end of 1958. In their early stages, the combined area of the camps was about the size of a small town, but the number of political prison camps and detained inmates have increased with the changes in leadership of North Korea.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by Amnesty International(AI), there were kwanliso in the following places: kwanliso 14 at Kaechun, South Pyongan province; kwanliso 15 at Yodok, South Hamkyung province; kwanliso 16 at Hwaseong, North Hamkyung province; kwanliso 18 at Bukchang-ri (also known as Deukjang-ri), South Pyongan province; kwanliso 22 at Hoeryong, North Hamkyung province; kwanliso 25 at Susong in Chongjin, North Hamkyung province. The estimates range between 135,000 and 200,000 inmates languish in the kwanliso in North Korea.

Information that AI has received suggests that the kwanliso are divided into areas or sectors for: offenders only, offenders and their families together, or families separately and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crimes committed. According to those interviewed by AI, the kwanliso are divided into “absolute control zones/districts” (wanjeontongjegyuk) and “revolutionary zones/districts” (hyukmyunghwakyuk). While kwanliso 15 and 18 have both revolutionary zones (hyukmyunghwakyuk) and absolute control zones, the others only have absolute control zones (wanjeontongjegyuk / teukyoldokjaedaesang guyeok) whose inmates are sentenced for life. Inmates in the absolute control zone are sentenced for life.

Those detained in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suffer from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ce people are sent to the kwanliso, their citizen identity cards are confiscated and they receive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re appears to be widespread torture during pre-trial examinations of those accused of vague political crimes that has led to confessions.

All inmates become experienced or witnessed vicious beatings by prison guards. All people survived in the kwanliso testified that they had witnessed public executions and arbitrary executions for minor infractions. All inmates were subjected to long hours of forced labour with unreasonably high production targets which involved dangerous work seven days a week with very little period of rest.

Those imprisoned in the kwanliso are forced to work long hours with very few breaks in dangerous conditions with starvation-level food rations. Failure to meet the work quotas led to reduction or discontinuation of food rations. Those who do not meet their work-quotas are denied food; not just individually but also the group they are assigned to work with. Kwanliso survivors testify that a high number of deaths were caused by untreated accidents at work and a combination of poor diet and overwork. Medical treatment of those injured is nearly non-existent.

According to those released from the kwanliso usually the revolutionary zone, hyukmyunghwakyuk, in kwanliso 15, on their release, the authorities handed them back their citizen identity cards and they had to sign a pledge that they would never disclose the details of life inside the kwanliso. Those released are closely watch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face various restrictions.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피난민' 문제와 해결 방안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and Possible Solutions



필 로버트슨 _ 휴먼라이츠워치
Phil Robertson _ Human Rights Watch

휴먼라이츠워치는 올해 2010, 2011, 2012년 일사분기에 북한을 탈출했던 60여 명의 북한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일부 사실을 전달하도록 한다.

이번 조사는 사설시장 활동, 북한관리의 부패,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면서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활동이 더욱 용이해졌고, 내부 움직임이 더욱 촉진시켰으며, 북한정부의 선전을 타파하고,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경향으로 인해 유엔난민기구(UNHCR)나 국제사회가 중국이 국제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탈북자를 난민(refugees)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밝히는 바이다.

1951년 난민협약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 있는 모든 북한주민들은 불법으로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이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마땅히 현지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은 북한주민과 같은 난민신청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1995년 유엔난민기구와 맺은 협정을 무시하고 있다. 대신 중국은 1986년 북한과 맺은 상호협정을 계속 따르겠다고 중국에서 발견한 북한주민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유엔난민 고등판무관프로그램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와 동 집행위원회의 다른 정부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영역의 “새로운” 범죄들이 사설시장, 정보통신, 저항운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사회에 깊이 파고드는 핸드폰은 북한을 떠나려는 가족들을 증재하여 이들이 브로커와 떠날 수 있도록 비용, 일정들을 논의하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한다. 유사하게, 한국어로 된 CD와 DVD 밀수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종범죄다.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사설시장과 행상으로 인해 의무적인 직장배치와 같은 정부의 통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음을 인식해 왔다. 이에 북한정부는 사적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련의 형법 범죄에 관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관리들에게 이러한 범죄 해석에 대한 재량권을 제공하였다.

물론 제한이 있기는 하나, 경찰서에서 풀려나거나,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하는 등은 뇌물로 가능하다. 이러한 체제 이완현상으로 더 많은 북한주민이 탈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는 북한주민의 원자화된 개인행동이 감소했다거나,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났거나 하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더 나은 이동성, 더 발달한 정보통신, 더 많은 협력으로 인해 경찰청장의 아내, 평양상인의 딸, 전 군인, 보안부 고위간부 등과 같은 특이한 난민들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연결망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도 북한을 떠

나기 시작한 것일까? 일부 북한엘리트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난민 강제송환정책을 고려해 볼 때 중국당국이 참조해 보아야 할 중요한 발전이기도 하다.



This year Human Rights Watch has managed to interview over 60 North Koreans who have fled the country in 2010, 2011, and the first quarter of 2012. In this forum, I would offer some new findings among what we have found.

The research shows that private market activities, corruption of North Korean officials and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increasingly combining to facilitate heretofore restricted activities, permit greater internal movement, break down government propaganda, and enable flight from North Korea. These trends in turn make it ever more critical for UNHC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ersuade China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cognize North Koreans North Korean residents as “refugees.”

As article 1 of the 1951 Refugees Convention stipulates, all North Koreans in China should be considered refugees sur place because they will face the severe punishments for leaving the country illegally if they are forced back to North Korea.

Sadly, however, China disregards a 1995 agreement with UNHCR to allow UNHCR personnel unimpeded access to asylum seekers like the North Koreans. Instead, it reportedly continues to follow a 1986 bilateral agreement with North Korea to forcibly return North Koreans found in China. Meanwhile, China continues to serve as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 of UNHCR. UNHCR should raise concerns about this, and other governments on that Committee should also be raising strong concerns about China’s actions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Those governments should make it clear to Beijing that they expect China will fully respect refugee rights in line with its legal commitments to fulfill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at doing so is absolutely necessary for a member government of this important Committee.

Human Rights Watch’s research found that a wider swathe of so-called ‘new’ crimes are connected with private marke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movement. As more of these activities are criminalized, it raises the possibility that more will be compelled to flee North Korea. In particular with mobile phone technology seeping into North Korea, there are new possibilities of coordination between families to leave North Korea, and arrange payments and schedules with brokers to move people out. Similarly, smuggling of CDs and DVDs containing Korean-language content from the China border is also a new crime that is facing a crackdown.

The DPRK government has clearly recognized that private markets and itinerant trading puts increasing numbers of North Koreans outside government control systems. The government has thus created a set of penal offenses that effectively criminalize a wide variety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set out wide discretion to officials to interpret how and when to apply those crimes.

While there are limits to what money can facilitate, it is possible to pay bribes to seek release from police stations, soften punishments, or avoid arrest. There is a plausible presumption that this loosening may permit more North Koreans to escape, but nothing in Human Rights Watch research indicated that the relative atomization of North Korea action has been reduced, or that there has been any rise of any organized resistance to the regime.

The prospect of more mobility, better communications, and more coordinated efforts for North Koreans to flee their country is bringing interesting results and unusual refugees, like the wife of a police general; the daughter of a well-connected Pyongyang trader; former soldiers; and last but not least, a senior Security Department cadre. Are those with connections and resources starting to think about getting out? That some North Korean elites may also be taking this opportunity to get out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for consideration by the Chinese authorities as they contemplate their forced return of refugees’ policy.

북한인권 증진방안: 정보를 통한 인식과 역량강화 그리고 실천



Advanc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wareness, Empowerment through Information, and Knowledge into Action

린 리 _ 미국 민주주의재단

Lynn Lee _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여러 지표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과 재인식이, 특히 남한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일반 대중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을 지키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것과 동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의 프로그램 담당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은 북한의 인권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책, 탈북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잘 작성된 보고서와 글을 통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북한 주민의 복리를 회복하기 위해 매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인권침해상황을 계속 폭로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정부는 시민들이 자유를 향유하고 인간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개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서, 다양한 미디어의 통로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마도 폐쇄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인권 커뮤니티가 이에 대해 끊임없이 이에 대해 고민하고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들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몇몇 관찰을 통해 북한 인권 관련 커뮤니티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 첫째, 북한주민들을 다른 세계와 연계시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이 다른 나라에도 그들을 도와줄 지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둘째, 북한주민과 직접적인 접촉할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인권문제를 진정으로 보편적인 이슈로 만들 뿐만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고 민주적 전환을 경험했던 국제적·지역적 시민사회조직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국제적·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파트너십과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젊은 북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싶다.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이들은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초를 닦고 연계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

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이를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권

을 존중하는 문화를 개발하는 것은 오직 민주체제의 구축과 민주적 이상과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In the last few months, a number of indications have pointed to a higher awareness and recognition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and throughout the rest of the world. However, the general population of North Korea is clearly far from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s to exist in dignity and respect as human beings.

As the program officer for North Korea at NED, I am going to discuss three areas to consider and explore in improving human rights: 1) raising aware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2) empowering North Korean citizens with information; and 3) turning knowledge into action. Raising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a crucial element in improving the condition in North Korea.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come interested in North Korea through books and oral testimon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well-documented human rights reports and articles. We should continue to document and expose the terrible abuses that take place every day in North Korea and restore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 citizens,

Next, it is important to help them to better understand their own reality and recognize that they deserve a better life and a government that exists to ensure its citizens can enjoy their civil liberties and live to their full potential as human beings. In this regard, channeling news and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dia conduits is perhaps the best way to engage with and empower people living in a closed society.

What can North Koreans themselves do to improve their own human rights situation? I hope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mmunity is constantly thinking about them and will be able to provide imaginative and innovative ideas for transforming knowledge into concrete action. Here are some of my observations on what I think the community has begun to do in an effort to make this happen: 1) linking North Koreans with the outside world and opening up direct communications with them to help them realize they have supporters outside of the country; 2) building the capacity of those who will have direct interaction with North Korean citizens; and 3) building coalitions and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to foster solidarity and make North Korean human rights a truly universal issue as well as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have gone through peace building and democratic transitions. I would like to put a special emphasis on building the capacity of young North Koreans. When North Korea opens up, they could take an active role in building the linkage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eventual reunification.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oth North Korea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 accurate information to become aware of the grim reality in North Korea, and opportunities to turn their knowledge into action. However, cultivating a cultur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democratic institutions built and strengthened on democratic ideas and values.



(Discussion)

Self-Determination of the North Koreans



Gi-Woong Son _ Director,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KINU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the issue that we, Koreans, must take care of. I feel a little ashamed with this reality that we are incapable of settl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ourselves and asking for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ns are human beings just like us and are entitled to live lives worthy of human dignity. Unfortunately, North Koreans' lives indicate the opposite. I would like to thank every one of you here who came to this forum with the honorable minds that we all, as humans, should unite efforts to help North Koreans.

My question is in regards to the enact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South Korea. Today, Koreans share the same thoughts that we need to make efforts and commit ourselves to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However two different views collide regarding the enact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ne is that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ould be realized if we enac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demand improving the issue strongly to the North. Another aspect is that enac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demanding its betterment strongly will only result in repercussions by the North and not only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but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 will be worsened. Please share your opinions on this.

Also, I would like to raise policy issues on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itially should be resolved by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If they are content with the lives they are currently leading, our discussion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does not carry any weight. The reality is though, most North Koreans are not familiar with the outside world. They don't know how people abroad are living, under what system. And this makes it impossible for them to realize how suppressed their lives are. The focu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should be about allowing North Koreans to compare North Korean society to other societies and making them understand what living a human-like life really is. Of course, efforts to reduce political and physical suffering and hardship of North Koreans are important as well. But fundamental direction of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hould be to let North Koreans have opportunities to realize the problem, decide what is right or wrong, compare and determine the ways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themselves.

As you know, all former commun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had been changed not from the top, but from the bottom. The citizens, the ordinary people, demanded more freedom, more democracy, more welfare and the political leaders there had no other alternatives but to accept their demands.

Many people insist that North Korea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ex-commun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due to its brainwashing indoctrination of the Juche Ideology and strict control by the secret police. But please be reminded and do not forget that the former communist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d the similar indoctrinations and secret polices like KGB, Stasi, etc.

We should try to open the eyes and ears of the North Koreans and let them have opportunities to decide their future for themselves and to show their firm self-determination.

제2회의: 북한의 보건권 실태와 개선방안
Session 2. The Reality of Healthcare in North Korea and How to Improve It



●●●● 발표(Presentations)

**잊혀진 아이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고아와 혼혈아들**

Forgotten: North Korean Orphans & Children of Mixed Marriages in China



그렉 스칼라티우 _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Grigore Scarlatoiu _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중국에 있는 북한아동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중국에 도착하거나 국경을 넘는 과정 동안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부모에게서 떨어지거나, 뒤쳐져서 남겨진 아이이다. 두 번째 유형은 아동의 부모가 다른 혈연적인 배경을 갖는 경우로 아동의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가 탈북 여성인 경우이다.

중국 당국에서 지역사회까지 확대된 최근의

호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아이를 등록할 때 어머니의 정체까지 노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여성과 결혼을 한 중국인 남성들은 어머니가 불법 경제 이주자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체포 또는 송환될 것을 각오하고 자녀를 등록시키거나, 자녀를 등록시키지 않음으로써 교육을 받지 못하게 내버려두게 된다.

중국의 의무교육법은 모든 아동들이 9년의 교

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별적으로 북한 아동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호구제도가 주민들을 가정의 구조 안에 묶고 있기 때문에 등록 문제가 북한인 어머니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혼합결혼 가정들은 건강보험이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자 보호법은 중국 내 아동인권 관련 주요 법령이다. 이는 가정, 학교, 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도록 사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북한 아동들과 혼합결혼으로 태어난 아동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내 아동노동은 소규모 작업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제조기업 등과 같은 미숙련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형법 조항 244항을 개정하여 이전 법체계 아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적인 작업현장의 노동자들까지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북한 아동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작업 현장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North Korean children in China can be separated into two main categories, according to relevant sources. First, there are those children who are lost, taken away, or left behind by their parents during the process of crossing the border or once having reached China. Second, there are those children whose parents are of different ethnicities: the father is Chinese and the mother has defected from North Korea.

Despite recent hukou reforms, which have expanded authority to local communities, the fact remains that registering a child exposes the identity of the mother. Thus, Chinese men of mixed marriages have two choices – to register the child, risking the mother’s arrest an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on the basis of “illegal” economic migrant, or not to register the child, thus leaving the child without access to education.

China’s Compulsory Education Law stipulates that all children shall receive nine years of education, yet selectively refuses to enforce this for North Korean children. In addition, since the hukou ties people to their household structure, mixed marriage families are prevented from receiving health insurance and services since registration puts the North Korean mothers at risk. The PRC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Minors Protection Law is the primary law for children’s rights in China. It established judicial responsibilities for families, schools, and the government to protect children, but its protective articles are not applied to North Korean orphans and mixed children of mixed marriage who are not registered.

It has been noted that child labor in China happens in low-skill service sectors as well as small workshops, businesses, and various manufacturing enterprises. China has amended its Criminal Code Article 244 so that the term, forced labor,

최근 ‘후커우 등록법’이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이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에 현존하는 법을 집행하는 문제이며, 중국정부가 후커우 등록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허가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중국 내 북한아동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아동들의 취약성과 무력함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실패한 계획경제와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에 대한 저항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그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부모 중 하나가 중국인일 경우 다른 한 부모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하지 않고 호구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 2007년 한국정부에서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 북한 내 NGO들을 통한 인도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내 혼합결혼을 통한 북한 아동 및 고아들의 실상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동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데 유용하다.

also includes workers in informal or illegal workplaces, who were not covered previously under the law. While this may not directly be applicable to North Korean children, the informal and illegal workplaces are indirectly exposed.

Recently, 'the hukou registration law' is in place of new pending issues. The issue is in enforcement of an existing law, rather than in the drafting of a new law. A possible way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do this would be to allow hukou registration for children of one Chinese parent without requiring ver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other parent.

In addition, engaging in fact-finding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North Korean children in China is essential. Certainly, the root cause of the vulnerability and helplessness of these children is the direct outcome of North Korea's failed centrally planned economy and the Kim regime's reluctance to open up and reform. Solutions to ending their ordeal may include: persuading the Chinese authorities to find a way to allow hukou registration if one parent is Chinese, without requiring that the identity of the second parent be verified; a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2007 ROK Protection and Settle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c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disbursed through NGOs in China and North Korea. Any attempt to resolve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orphans and children of mixed marriages in China could benefit significantly on more comprehensive and accurate data on this topic.

북한주민의 건강권

The Rights to Health in North Korea



차지호 _ 메디피스
Ji-Ho Cha _ Medipeace

1990년대 북한의 기근으로 국제기구, NGO,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건강 실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최근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의료체제의 왜곡이 발생하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보험 서비스에서 배제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보건 분야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념적으로 북한의 의료제도의 왜곡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이주를 중심으로 의료부문에 있어서 북한 주민의 소외에 대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후기-사회주의' 의료제도로부터의 소외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중앙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며, 중앙정부가 지원을 한다. 그러나 북한이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의료분야에 대한 재정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7·1조치이후 경제와 사회안보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의 책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이 책임은 개인과 이차경제(secondary economy)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실제적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차경제를 강력히 통제하였다. 시장 활동에 대한 중앙의 규제는 등록되지 않은 개인들에 의해 유통되는 물품이나 판매를 금하였고 이로 인해 암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에서의 이주, 인신매매,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배제

이주와 인신매매는 탈북자와 중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의료보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

다. 북한의 대기근으로 중국 국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짧은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하던 초기의 이주와는 달리 1990년대 말에 밀매 네트워크가 국경지역에 형성되면서 정착이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 급격히 서구화됨에 따라 농촌에서 남성과 여성사이의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자 중국과 북한사이에 형성된 밀매 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되어 인신매매의 초기단계로서 기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경을 넘는 북한 여성의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팔려가고 이들은 강제결혼과 가정 폭력, 중국남성들의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차단한 채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을 강제송환 처리하고 있다. 또한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여성의 자녀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할 법적 자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려고 할 경우 불법 등록

을 위해 벌금이나 뇌물을 지불해야 하며 뇌물의 액수는 경찰과 공안과의 관계, 지역 리더들의 인종(ethnicity)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중국-북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은 한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데 이때 중국인 아버지로부터의 적절한 양육을 받기가 어려우며 조부모의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인신매매나 불법노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탈북자들은 시장중심의 의료보험 제도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남성과 탈북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공식적인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까닭에 적절한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밖에 현장에서의 언어 문제와 의료 시설의 부족, 자가 진단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치료(Self-medication)가 발생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Since the great famine of North Korea in 1990s,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on health situation among states,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iven the consequence of recent rapid socioeconomic transition, many North Koreans are expected to be excluded from proper healthcare service with the distortion of local health system or displacement from the community. But, there is rare data in health sector due to limitation of direct access to population in North Korea.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rginalization of North Korean population from healthcare by conceptually illustrating the distortion of North Korea health system and displacement from the community.

Marginalization from 'Post-Socialist' Health System in North Korea:

Socialist health systems were centrally planned and administered, funded by central government. However,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0s, there has been a dramatic decrease in government financial capacity for health sector. Furthermore, after the '7.1 measure' in 2002, a significant reform of second economy and social security system,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for the people's welfare have been placed to the individual and the secondary economy.

Howeve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enforced tight controls over the secondary economy, which functions as a critical part of current healthcare system. The central regulation of market activities has been imposed on unregistered private distribution and sales, which in turn will expand black markets.

Displacement, Human Trafficking and Exclusion from Healthcare in China:

There have been the heavy consequences of displacement and human trafficking on the healthcar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children born to North Korea women in China. Unlike the early phase of displacement to get some assistance from Korean Chinese residing in the Chinese border area after the great famine in North Korea, the circular migration

changed into permanent displacement to China as the smuggling networks were established around the border in the late 1990s. In particular, as the existing gender imbalance in rural area incurred the glowing shortage of female with recent rapid urbanization, smuggling networks was settle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has functioned as initial entry of process of human trafficking. As a result, very high portion of displaced North Korean females crossing the border have been sold to Chinese males in North-eastern China by traffickers and have experienced forced marriage, domestic violence and further exploitations of Chinese men. However, since Chinese government has not only tied protection access but also treated trafficked women with forced repatriation,

In addition, under Chinese law, children born to North Korean women in China have a legitimate claim to Chinese nationality. If parents want to register their child, they have to pay fine or offer bribe for illegal registration. The cost (including bribe) is varied by exist of North Korean mother in household, family's relation with police or public security officer, and the ethnicity of community leaders.

Most children are being raised by either a single parent or a guardian, but since Chinese fathers often are neither fully competent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nor are the children's grandparents.

Consequently, financial difficulties which originated from human-trafficking and illegality of labor have increased vulnerability in current market-centered healthcare service. Furthermore, North Korean children borne between Chinese men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have been exposed to risks of improper health care because most of them are not officially registered. Other factors such as language and lack of health facilities on site, and self-medication after self diagnosis have prevented their accessing proper health care.

북한에서 적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초점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North Korea, with a Focus on the Right to Adequate Food



코트랜드 로빈슨 _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교
Courtland Robinson _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북한에서의 기아와 차별 1995-1998

1. 배경

1945년 알타회담에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고, 한국의 분단은 모든 삶의 국면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경제의 상보성이 깨지게 되어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한국 중공업의 70-80%를 북한이 차지하게 된 반면, 남한은 경공업과 쌀 생산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남한이 미국의 보호 아래 군부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로 진화해 나가

는 동안 북한은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되어 독재 국가, 스탈린주의 정권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북한은 주요 정치적 우방이나 경제 후원자가 사라지게 되었고 1990년대 초, 북한의 GDP가 감소하기 시작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경제적 쇠퇴와 더불어 농업생산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1989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1995년, 1996년에 대홍수와 1997년의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자 1995년 8월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에 구

호식량과 원료 및 의료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때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북한의 “홍수가 너무 극심해서 농업과 기간사업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12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2백 10만 명의 어린이들과 50만 명의 임산부가 굶주리고 있어 국제 원조단체들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호소했다. 북한의 자연재해 현상과 함께 1990년대 북한의 식량 수급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국가가 운영하던 국가배급제도(PDS)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식량배급이 감소한 것이다. Andrew s. Natsios에 따르면 1990년대 초까지 국가식량배급제를 통한 식량배급이 더욱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평양, 당지 배추, 군인, 핵심 산업의 노동자에게 돌아갔던 잉여농산물, 원조식량, 상업적 수입품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북한에 있어 사망률에 관한 연구

1997년 7월부터 2000년 6월 사이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 총 2,692명의 북한주민을 대상

으로 인터뷰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는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인터뷰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7세 이상의 이주민만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에게는 매달 용돈 외에 다른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 12개월 동안 80-90%가량이 인터뷰에 응답하였으며, 무응답률은 5%이하이다. 응답자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의 수, 규모, 자산, 나이, 성별, 교육수준, 직업, 가구내의 당원의 유무 등에 관해 답변하였으며, 데이터는 SPSS11.0와 Stata8.0에 입력되어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가구에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고, 핵심계층의 배경을 가진 이들은 동요계층보다 사망률이 낮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이는 계급의 차이가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또한 이변량분석에서 가구 내에 당원이 있다는 것은 낮은 사망률과 연관되며 교차분석의 통계적 중요성을 위한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s)은 가구 내에 당원이 있는 것은 주거공간, 자산, 교육수준이 높고 해외원조의 접근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amine and Discrimination in North Korea, 1995-1998

1. Background

The partition of Korea was affirmed at Yalta in 1945 and the division of the country extends through all phases of Korean life. The division broke the mutual complementarity between the northern part and southern part of the economy: The northern Korea had almost 70-80% of the heavy industry including most sources of hydro-electrical power supply; and the southern Korea dominated most of the light industry as well as rice production. While South Korea evolved from a virtual US protectorate to a military dictatorship to a democracy, North Korea has remained an authoritarian, Stalinist regime. Howev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89 had left North Korea without a key political ally and economic patron. Beginning in 1990, North Korean GDP began to decline and, as many sources suggest, was in negative growth and along with economic decline, agricultural production began to falter.

After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peaked around 1989 and has fallen significantly since. The floods of 1995 and 1996 were followed in mid-1997 by the “worst drought in decades,” and North Korea asked for a relief food, resources and medical support to UN in late August 1995,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WFP) reported that the floods were “extremely serious and caused extensive damage to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The FAO/WFP mission issued a joint statement in December 1995 that 2.1 million children and 500,000 pregnant women were on the brink of starvation and appealed to the international donor community for contributions.

With natural disaster in North Korea, another sign of encroaching food scarcity in the 1990s was the decline in food rations available to North Korean workers through the government-run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By the early 1990s, according to Andrew S. Natsios, food distributions through PDS were becoming more intermittent. He argues that as the economy contracted, what little remained of the rice surpluses, donor food aid, and commercial imports was directed to feeding the capital city, the party elites, the military, and laborers in essential industries.

2. Study of Famine Mortality in North Korea

From July 1999 to June 2000,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2,692 North Korean arrivals along the China/North Korea border. All North Korean respondents who were 17 or older gave verbal consent to be interviewed. Only migrants who were 17 or older were interviewed. No incentives were given to respondents although interviewers received a monthly stipend.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80-90% of all arrivals at the nine sites were interviewed during the twelve-month period with a non-response rate of under 5%. Respondents were asked to provide a basic description of their house, number of rooms, square meters of living space, assets, age, sex,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party member in the household.

The research suggests that people living in households with a “hostile” class designation would be at higher risk of mortality and those from “core” class backgrounds at lower risk than those in the “wavering” class category. Differences, however, were not significant as some commentators have suggested that class distinctions do not count for as much in North Korea as they used to.

In a bivariate analysis, having a Party member in the household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mortality. The following cross-tabulations with chi-square tests for statistical significance demonstrate that having a Party member in the household is associated with larger living space, more assets,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greater access to international aid.

●●● 토론(Discussion)

북한의 식량권과 보건권

The Right to Food and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김수암 _ 통일연구원
Su-Am Kim _ KINU

북한 내에서 식량권과 보건권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북한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정책이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로빈슨 교수가 지적하듯이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북한의 성분

정책이 차별을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완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와 성분이 어떻게 연계되면서 북한주민의 식량권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장마당이 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생존을 모색하면서 성분이라는 정치적 계층만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여전히 핵심계층은 차별적 분배정책을 통하여 잘 살고 있다는 점에서 성분이 핵심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장마당 등 상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층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계층 분화를 성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성분은 부패구조와 연계되면서 엘리트층이 상류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력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부패는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단속과 통제권을 가진 통제 엘리트들은 주민들에 기생하

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부패를 통하여 통제엘리트와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성분 상의 구분과 달리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 생활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북한 내에서 계층별 식량권과 건강권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난으로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하류층의 건강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화소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경우 교화소 내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 ■

The serious decline of the right to food and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originates not only from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ability to implement their duty with the shortage of available resources, but also from their policies themselves. As Dr. Robinson points out in his paper, the classification of family background, which is divided into the core class, the wavering class, and the hostile class, plays a major role in accelerating discrimination within the society. I would like to make a complementary remark about this analysis by explaining how social change led by North Koreans' struggle to survive from the Arduous March and the family background are associated, and how the combined elements are influencing North Koreans' right to food and right to health.

Since the Arduous March, North Korean residents have sought solutions of their own to earn their own living and in doing so a market, jang-ma-dang,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ir life. As the market's role has grown in importance for their survival, the political class such as family background alone can no longer explain changes in the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access to food. It is quite clear that family background is still one of core elements in the society in that the core class, who benefited from the discriminative distribution system, are still better off. However, accumulating wealth from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market has become widespread. In the process, there appears to be a division in the social stratum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family background alone. The family background associated with systematic corruption functions as a power resource for elites to enjoy the high life.

Currently corruption appears to have become institutionalized inside North Korea. As social control strengthens, elites who take control over and have authority to crack down on anti-social crimes have accumulated their wealth, sponging off North Korean residents. In particular,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are connected to these elites with corruption become richer. Even though it is hard to strictly distinguish their living conditions yet, some characteristics measuring standard of living enables them to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namely the upper class,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regardless of their family background. Thus, from the criteria of right to appropriat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e polarization of stratified access to the right to food and health becomes serious.

The right to health of the marginalized people has been severely threatened by malfunction of free medication system as a result of economic hardship. In particular, exhausted from forced labor, poorly fed and suffered from malnutrition, and exposed to unhealthy conditions, prison inmates of long-term correctional camps, with lack of almost no available resources, are easily susceptible to disease. In these cases, many of them end up dying without receiving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in the camps.

제3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종합토론)
Session 3.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Round-Table Discussion)



●●●● **지정토론(Panal Disscussions)**

**지난 10년간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의제와
앞으로의 과제**



*A decad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t the UN:
Efforts to Keep the Momentum*

요안나 호사낙 _ 북한인권시민연합
Joanna Hosaniak _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2003년 이래 유엔에서 10년 동안 북한 인권현안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북한의 인권환경의 긴박성과 심각성에 대해 많은 국가들의 설득을 얻어내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접점에서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압력 수단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인권현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

이다.

2014년에 북한은 또 다시 보편적정례검토(UPR)를 받게 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여성, 아동인권, 정치범 수용소, 고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울과 제네바에서 이런 정보를 알리는 회의를 진행했다. 평양에서 온 북한대표부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권 현

황 등 우리가 제기한 두 가지 주요 의제를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새로운 법률을 채택한 것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압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NGO가 작성한 보고서에 이어 추가적인 정보를 담은 보고서들이 계속 배포됨으로써 외국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권고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GO의 북한인권활동의 또 다른 장은 유엔인권결의안을 기권한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북한인권활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

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신문에 정보를 배포하고 해당 정부에 로비를 할 수 있는 NGO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서구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매년 이러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는 신작 영화나 책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런 영상과 출판물의 수가 현저히 적다. 이러한 격차를 많은 한국 NGO단체들이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가 자동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말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Despite 10 years of work at the UN, we have found ourselves at the neuralgic junction where much more efforts have to be done to convince many countries of the urgency and gravity of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Most of all, it is a necessary step to raise the profil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efore any other tools of pressure may successfully be adopted.

In 2014, North Korea will undergo another UPR again. Last time, Citizens' Alliance produced briefing reports on women, child's rights, political prison camps, and torture. We organize meetings in Seoul and in Geneva to disseminate this information. We saw that two of the major issues we advocated for, the condition of the child's rights and violence against women, were put into recommendations of countries during the interaction with the North Korean delegation from Pyongyang. We may assume that the adoption of new laws in North Korea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is a result of such international pressure. The reports should be followed by the additional briefings, so that foreign governments can form informed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DPRK.

Another venue of advocacy work for NGOs is to activate local society's human rights activities for North Korea in the country whose governments abstain on the resolution.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the local country's newspapers and building network with local NGOs who can later continue to lobby their home governments is of utmost importance.

There is a lot of awareness regarding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in Western countries. New movies and books are being produced each year contributing to this knowledge. There is much less being done in Africa, South America, and most importantly, South East Asia.

We need to make efforts in order to change this situation without vague hope that the issue will be automatically picked up by other countries.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북한인권의 국제화·보편화 전략: 북한인권운동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 Strategy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nd Universal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ties –



김윤태 _ 북한민주화네트워크

Yun-Tae Kim _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인권문제는 체제가치나 이념가치 차원의 논쟁이 아닌, 국제적 인권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화,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상시적으로 대응해 나설 수 있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활동기구가 부재하다. 따라서 유엔과 개별국가, 민간단체 및 개별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북한인권국제감시그룹’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자료실’을 만들어 북한 인권활동의 근거와 각종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적인 북한인권침해 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에 관한 논의와 이슈화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의 경우 인권이 포괄하는 범주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시급함과 심각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개선 활동은 국제적인 차원의 압박과 강제, 대화와 협력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Human rights should not be systematic or ideological value but international human rights values. To mak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internationalized and universalized, we should seek a methodology to enhance a cooperative network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is no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play a role of a control tower to cope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daily life on a regular and continuous base.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International Watch Group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ich can encourage participation of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nd an individual stat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reference librar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which can be used as a foundation for human rights activities and basic materials for various activities. To this end, a database system needs to develop an international database management program to systematically accumulate and efficiently utiliz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ternational efforts need to be intensified for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has again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An international network to solve issue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to discuss their refugee status and publicize the issue at the international level.

Viola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ategories are too diverse and extensive, in addition to being very urgent and extremely serious. Thu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an international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to change North Korean authorities' attitudes through diverse means, including pressure, coercion, dialogue, and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김영일 _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Young-Il Kim _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침해주체가 북한당국이라는 점,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및 북한내부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북한 인권개선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외부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UN이나 EU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며, 미약하나마 성과가 나타난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민간단체가 북한인권실상을 잘 정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사회에 알리는 여론 확산활동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별국가 및 UN의 인권실무자들이 정책과 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개선활동의 주체를 민간, 개별국가, UN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이는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 하며 특히 민간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은 국제적·국내적으로 막중함에도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관련법률(북한인권법)의

미제정 및 실무자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정부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에 북한인권활동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과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북한 내 인권상황의 체계적 조사 및 북한당국의 변화촉구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당국이 스스로 인권상황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국제적 압력으로 북한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UN을 통한 조직적 요구와 북한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별국가들의 정책을 통한 대북압박이다. UN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요구는 많은 성과도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NGO들의 국제적 연대활동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NGO들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을 위해 상설 북한인권 협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There follow some difficulties in human rights activities for North Korea; all of the human rights issues that arise in North Korea are systematic violations by the North Korean regime; the human rights issues are related to viability of the current regime; and they will be unable to enhance the residents'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ir own. Thus, the attention and intervention of the outside world are crucial.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are very meaningful for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mall achievement begins to be on the horizon.

Civil groups take the most important role in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se groups should organiz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outside world in a variety of way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 and precise data to human rights practitioners working in departments of states and at the UN, thereby instigating the draw out policies and institutions. While the actors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divided into civil society groups, states, and the UN, they are not separate. Rather, they are and must be mutually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Of these, the primary activists will continue to be civil groups.

Even 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ole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important, it has not lived up to its potential. This may primarily be becaus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did not pas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lack of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s unsatisfactory in systematically researching and cooperating with civil groups. It is reques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civil activist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upport these groups and be proactive in drafting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is essential to make systematical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demand changes from the regime.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enhance its human rights situation on its own. Thus, the various activities calling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must be conveyed to the regime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pressure. Demands through the UN for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are active, through. While there have many achievements, there are also problems to overcome.

On this matter as well, the less politically interested NGOs must help resolve the North Korean issue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이금순 _ 통일연구원
Keum-Soon Lee _ KINU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개선촉구 차원을 넘어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인권의 공론화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북한인권 개선

의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존의 논의는 북한인권 침해상황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권리별 연계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부족하다. 관련단체들의 캠페인이 전반적인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한국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는 없는 상황이다.

대북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합의하는 듯 보이나,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원칙과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루어지던 국제회의가 재개될 필요가 있고, 세부 분야별 활동기구 및 단체들의 협력으로 북한상황의 체계적 진단 및 이에 근거한 대북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사업 재정지원 담당 국가 및 기구들간의 정책협의 정례화도 필요하다.

대북교류과정을 통한 인권개선 추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교류 사업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정교한 전략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한 개선 촉구 방식과 병행하여 국제사회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인권적 관심을 다양하게 투영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변수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실태조사의 단순한 인권침해사례 수집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객관적인 실태정보 공유 및 개선방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내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인권협력'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pproach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been changed from calling for improvement to investigating li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With the longev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 public issue, there is broad agreement on the need for substantive improvement, but clear disagreements on the means to reach that goal. The existing discourse does not appear to be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whole record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or serious thought on the connectivity among different rights. While the campaigns of relevant organizations lead the discuss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o specific policy sugges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have been presented.

While there is general agreement on the need fo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there are sharp differences in the principles and approaches necessary for aid to tru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nferences, fora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ian groups behind aid to North Korea, need to recommence. In addition, organizations and groups in specific fields must cooperate to systematically diagnose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undertake projects in North Korea based on these appraisals. Specific policy consultations between states and organizations in charge of funding such projects must be made regular and periodic as well.

The need for human rights improvements through exchanges with North Korea have been argued consistently. However well-considered plans must be prepared if exchange projects are to result in the improvement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human rights situation.

Parallel to calls for reform through the UN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reflect human rights commitments in various ways over the course of implementing policies pertaining to North Korea. To this end, there must be consistent objective analyses of the various measures and factors that affec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 Research about human rights conditions must go beyond collect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xchange of objective information about conditions and means of improvement needs to be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e fundamental necessity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is that residents must be conscious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also be undertaken to proactively seek human rights venture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an accept.

사진(Photos)

2012년
사이오
인권포럼

The 2nd KINU
Chaillot Human Rights
Foru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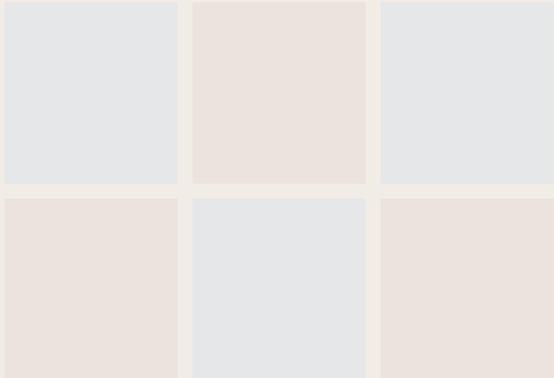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일시: 2012년 6월 14일(목) 09:00-18:00
Date: June 14, 2012, 09:00-18:00

장소: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볼룸(3층)
Venue: Lotte Hotel (Sogong-dong, Seoul), Sapphire Ballroom (3F)

KINU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고문단 (Advisory Group) ◆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Tae-Woo Kim
(President, KINU)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Benjamin H. Yoon
(Chairman,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Suk-Woo Kim
(President,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협의회 운영위원 (Council Executive Committee) ◆

기관명 Institution	운영위원 Executive committee	홈페이지 Homepage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손기웅 (운영회장) Gi-Woong Son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윤청용 (사무국장) Chung-Yong Yoon (Secretary General)	http://www.kinu.or.kr
기독교사회책임 Christian NGO	김규호 Kyu-Ho Kim	http://www.kcsr.kr
NK지식인연대 North Korea Intellectuals Solidarity	김홍광 Hung-Kwang Kim	http://www.nkis.kr
두리하나 Durihana	김윤태 Youn-Tae Kim	http://durihana.com
북한개혁방송 FNK: Free North Korea Radio	김승철 Seung-Chul Kim	http://nkreform.com
북한민주화위원회 Committee for the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서재평 (감사) Jae-Pyoung Seo (Auditor)	http://www.cdnk.co.kr
북한인권단체연합회 North Korea Human Rights Organization Association	정베드로 Peter Jung	
북한인권시민연합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김영자 Young-Ja Kim	http://www.nkplf.com
북한인민해방전선 NK people's Liberation Front	최정훈 Jeong-Hun Choi	http://www.nkplf.com
북한전략센터 North Korea Strategy Center	강철환 Chul-Hwan Kang	http://www.nksc.co.kr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North Korea Strategic Information Service Center (NKSIS)	이운걸 Yun-Keol Lee	http://www.nksis.com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Institute of Traditional North Korea Food	이애란 Ae-Ran Lee	http://www.nkfood.or.kr
북한정의연대 Justice For North Korea	정베드로 Peter Jung	http://www.justice4nk.org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김영일 Young-Il Kim	http://www.pscore.org
세계북한연구센터 World North Korea Research Center	안찬일 Chan-Il An	
송의동지회 Soon Eui Dong Ji hoe Inc.	한일성 Il-Seong Hahn	http://www.sungy.co.kr
자유북한방송 Free North Korea Radio (FNK)	김인실 In-Sil Kim	http://www.fnkradio.com
자유조선방송 Radio Free Chosun (RFC)	이광백 Kwang-Paeg Lee	http://rfchosun.org
탈북난민인권연합 NK Refugees Human Right Association of Korea	김용화 Yong-Hwa Kim	http://www.qnrgksdlsrnjs.co.kr
탈북여성연대 The Coalition for North Korean Women's Rights	강수진 Su-Jin Kang	http://nkwomen.org
탈북예술인단체총연합회 Federation of Muslim Artists Group Total	주명신 Myeong-Sin Ju	http://www.nkculture.or.kr

한반도 평화정착·북한·통일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통일연구원은 관련 분야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The Leading Think-Tank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With special expertise in peaceful settlement of longstand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nd unification, KINU has contributed to
laying the foundations for de facto unification through basic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의 인권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북한이탈주민 및 난민대책 연구,
이산가족, 남북 억류자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인권단체와 공동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Th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collects information and materials related to matter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humanitarian aid toward the
North, and inter-Korean humanitarian matters such as separated family members, abductees and POWs.
The Center also conducts research on policy development and has published the annual white paper analy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he Center maintains a wide network of contacts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actively performs collaborative
research and activity rela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matters.